

섬 전기버스 운행, 뜻은 좋지만 돈은 있나요

이낙연 지사 올 역점 추진

6억짜리 버스 국비 1억 불과

“재정난에 현실성 떨어져” 비판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 가서 말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전기버스 관련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했으면 교체가 임박한 버스가 몇 대인지 정도는 나올만 합니다. 전남의 섬은 전기 버스 도입이 용이하니 탄소제로를 위해서 시작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보고는) 구두를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것과 같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11일 실국장토론회

에서 환경국(동부지역본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보고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보고에서 환경국이 올해 전기차 승용 549대, 버스 4대 등 553대(민간 477공공 76)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과거 자신이 강조한 내용이 전혀 보고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탄소제로섬, 에너지자립섬 등을 위해 세금으로 재정지원금이 나가는 섬 지역 버스를 전기버스로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환경국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섬지역에 전기버스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현실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일반버스의 차값의 2배에 이르는 4억

5000만~6억여원의 전기버스 도입 시 국비 지원이 1억원에 불과하고, 전남 섬의 경우 좁은 도로, 승객 감소, 유지·관리 불편 등으로 대형버스에서 25인승 중형버스로 교체하는 추세인데 환경부가 보급하는 전기버스는 모두 대형이기 때문이다.

또 오지·도서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 역시 일부에 매번 대당 1500만원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아 업체의 입장에서 굳이 비싼 전기버스를 매입할만한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기버스의 경우 한번 충전해 178km 밖에 가지 못해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인프라 비용도 수반되어야 한다.

37대의 농어촌버스를 공영으로 운영하면서 1년에 군비 22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신안군은 전기버스 교체 시 버스 구입과 충전기 설치 등에 엄청난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오는 5월 대나무축제부터 3대의 전기버스를 운영하는 담양군은 지난 2014년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초기비용 21억원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었고, 4대를 운영할 예정인 나주시는 충전기 등 인프라를 한국전력에서 맡기로 해 전기버스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전기버스의 섬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전기버스 보급, 국비 지원 증액, 도입·운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인프라 설치 등 행정·재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학속 원장 첫 공모

전남도, 19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공석인 전남학속 원장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 10일 원장추천위원회를 열어 원장 자격 요건 등을 확정, 12일부터 원장 후보자 모집에 나선다.

그동안 전남학속 원장은 공개채용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가운데 전남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인 전남지사가 임명해 왔다. 이번 원장 공모는 1999년 전남학속 개관 이래 처음이다. 이는 2015년 ‘전남학속 운영 규정’을 개정해 원장 채용방식을 공개채용으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오는 19일까지 공모해, 21일 서류전형, 24일 면접시험을 치른 후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 후보자 2명을 지사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 5월 1일 신입 원장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방역은 이렇게 11일 광주시 서구청 광장에서 열린 서구 방역기동반 발대식에서 임우진 서구청장(맨 왼쪽)과 오광교 서구의회의장 등이 방역장비 시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 우다웨이, 박지원·송영길·심상정 등 만나 이달 마감 농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주요 정당의 대통령후보 및 캠프 관계자는 11일 방한 중인 중국 외교부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잇달아 접촉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치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국민 정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 대표가 잘 인지해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며 “사드 반대 당론을 수정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송영길 총괄본부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대표를 만나 “북한이 6차 핵실험 도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국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 핵실험과 도발을 막는 데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우 대표를 만나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도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우 대표와 조찬회 등에서 “사드 문제와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문제는 분리해서 한중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우 대표는 “양측이 함께 노력해 관심사항을 분명히 해결해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내 올해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접수가 오는 28일 마감된다.

농업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 소재지가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차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신청 대상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

골을 재배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지급 단가는 ha(3000평)당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으로 12월 말까지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 값에 따라 다음해 3월 지급된다.

밭농업직불금은 지목과 상관 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모든 밭작물에 지급된다. 이는 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논이모작직불금은 지난 3월 10일 접수가 마무리됐다.

또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경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20% 마을공동기금을 포함, ha당 농지는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이 지급된다.

/윤현석기자chadol@

웨딩사업에 돈 낭비·CCTV 직원 감시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갑질 행정’ 사실로

광주시 감사위 지적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의 부적절한 행정에 따른 예산낭비와 전임 직원의 ‘갑질 행정’, 과도한 직원 감시 등이 시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11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웨딩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나 관련 업체 참여 가능성도 조사하지 않은 채 컨벤션홀 웨딩사업 명목으로 주례대와 탁자, 의자 등 2000만원 상당의 집기를 구입했으나, 수요가 없어 방치되거나 대체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사전 논의도 없이 폐쇄회로(CC)-TV를 연수원 곳곳에 설치한 뒤 직원 동기도 구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가 하면 전체 직원들을 소집한 뒤 내부부서 유출을 이유로 과장급 직원을 일방적으로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또 초과근무수당도 엉터리로 집행돼 부당지급된 비용만 2015년 205만원, 2016년 192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고, 회식비 카드경과 사진판넬 제작비 허위 지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구입 과정에서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점, 전체 재산 가운데 연수원 재산과 광주시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 감사위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연수원 측에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주의조치 2명 등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시정 2건 등 8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고, 부당집행된 예산 500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시 감사위는 또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징계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보수 지급과 부적절한 전문계약직 채용 등 11건을 적발해 시정 5건, 조의 5건, 개선 1건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돈벌이 급급 수협은행, 어업인 대출에 소홀

대출 우대금리 기업보다 낮아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수협은행이 기업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어업인 우대에는 소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5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일반인이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에서는 평균 0.53~1.86% 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 대출 금리를 낮춰 주면서도 어업인에게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평균 0.37% 포인트의 우대금리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상품을 봐도 전체 70개 상품 가운데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3개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 이후 일반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신설된 대출상품은 27개지만, 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설된 대출상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6년 6월 현재 어업인 대출잔액은 전체 17조4000억 원 가운데 1.34%(2288억 원)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박종광 광주신보재단 이사장 후보 내일 청문회

광주시의회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인 박종광 전 kbc플러스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3일 연다.

지난해 말 윤장현 시장의 산하 기관장 인적쇄신에 따라 기관장 9명이 출사퇴임한 이후 첫 번째 열리는 인사청문회다. 박 후보자가 제시한 경영목표인 ‘보증잔액 7000억원, 보증공급 1조원, 기본재산 1800억원’에 대한 현실적 추진방안 등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정한 위원장과 주경남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찬·김민중·김보현·임택·조영표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청문회는 인사검증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조건 청취, 청문 대상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으로 이뤄진다.

박 후보자가 제시한 경영목표인 ‘보증잔액 7000억원, 보증공급 1조원, 기본재산 1800억원’에 대한 현실적 추진방안 등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특위는 청문을 마친 후 5일 이내 경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즉시 윤장현 시장에게 송부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